여수시, 2027년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기관 모집

평일 오전 7~9시 소아 외래진료 제공… 11월 30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평일 이른 아침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시작 전 소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아침 시간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정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평일 오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여수시 보건행정과에 공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제고 방안,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2월 중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분기별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때 이른 아침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소아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보건행정과(☎ 061-659-423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요가 집중되는 아침 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들의 진료 부담을 덜고, 소아 환자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등교나 출근 전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은 감기와 발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과 시설,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2027 여수시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축제·행사 속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올해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한 지역 축제와 행사 7개소에 다회용기 약 28만 9천 개를 지원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남승룡마라톤대회에는 올해 처음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해 마라톤 5km 구간 급수대에 다회용컵을 보급하고, 대회 종료 후 참가자 제공 식사에도 다회용기를 지원했다. 행사 전반에 총 4만 9천여 개의 다회용기를 제공해 음료 제공부터 식사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행사 운영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남승룡마라톤대회 지원을 끝으로 올해 총 7개 축제·행사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을 마무리했다. 축제장 먹거리 부스부터 스포츠 행사까지 지원 분야를 넓혀온 만큼, 앞으로도 행사 특성에 맞는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친환경 행사 문화 정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초피 수매가격 하락 대응… 재배농가·농협 관계자와 간담회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13일 초피 재배농가와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피 생산·유통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성현 광양시장을 비롯해 초피연구회 회원,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재배농가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피 수매가격 하락 원인을 살펴보고, 유통구조 개선과 국내외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배농가와 농협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 구축과 가공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성현 시장은 초피의 국내외 유통경로와 거래구조 전반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국 주요 초피 생산지로, 현재 366농가가 약 52ha 규모에서 초피를 재배하고 있다. 초피는 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이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수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하고 일부 거래마저 중단되면서 농가소득 감소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매체계 마련과 유통망 다변화,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마을 주치의 제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곡성군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방문보건인력이 의료 취약 가구를 방문해 기초건강검사와 진찰, 건강상담, 간호 처치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의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욕창 드레싱과 소변줄 관리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방문 의료진은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검사를 비롯해 기본 진찰과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욕창 관리와 생활 속 보건교육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 제도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사 ▲맞춤형 진찰 및 건강상담 ▲간호지시서에 따른 욕창·콧줄·소변줄 관리 등 간호처치 ▲생활 속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 경로당 주방후드 청소봉사로 어르신 건강 지킨다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스님) 산하시설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정민)는 11월 12일부터 구례읍 명지아파트경로당을 시작으로 구례읍 경로당 10개소 주방후드 청소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로당 주방후드 노후화 및 위생과 청결이 매우 열악함을 느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내 부모님을 모시듯 보살피는 기회"를 만들어 봉사활동에 나서기를 희망하였다.

봉사활동은 구례지역자활센터의 햇살가득사업단(청소·방역 등)에서 진행하며 2025년 우리동네경로당크린케어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300여곳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청소를 진행했었다.

명지아파트경로당 김순자회장은"자활센터에서 청소·방역을 해줘 너무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주방후드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 기분도 좋고 밥맛도 한결 좋아질 것 같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정민구례지역자활센터장은"이번 경로당 주방후드 청소봉사를 통해 구례군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운영 중인 구례지역자활센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구례군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례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061-781-7970)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청소·방역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